

청중 (사무엘상 15:17-27)

오늘 말씀은 청중입니다. 청중은 잘 듣고 따라간다는 뜻이다. 세상은 점점 발달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는 핸드폰 없으면 바보가 된다. 옛날에는 상상을 못 했다.

사람들이 세상은 더 어려워져간다고 이야기 한다. 뭔가 여유가 없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뭔가 마음에 쉼이 없는 삶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니엘서 1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직하고 지키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이 바쁘니까 할 수 없이 바빠진다. 영혼에 쉼이 없고 육신과 생각이 바빠지는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옛날에도 시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자꾸 현실화 되어간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어른들은 은혜 받고 살다가면 되지 하지 만 너무 빨라서 자꾸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많은 연구를 하고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3단체이다. 이들은 이미 그물을 쳐 놓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선점하고 그물을 치고 기다린다. 전 지구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주신 시스템이다. 잘 타야한다. 잘 타면 큰 것이 나온다. 일 안하고 큰 것 나온다. 일 안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다. 일 안하고 그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올지도 모르고 있다. 복음을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른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귀신들은 사람이 내 옆을 왔다 갔다 하는게 보였다. 그 사람이 귀신인줄을 몰랐다. 귀신을 알고 난 뒤에 눈 열렸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잡혀서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이다. 이 복음은 계시록 시대에도 답이다. 세상에 마지막 전쟁이 성경에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였다. 이 때도 답은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구원 받는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노아 홍수같은게 일어나도 필요없다. 구원 받는다. 계시록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기록이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된다. 이것이면 구원받는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근원을 해결했다.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복음을 잡고 살면 저주 없다. 모든 문제 박살내고, 거기서 오히려 답을 잡아야 한다. 본래 그렇게 만들어 냈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영원히 깨버렸다. 다시 붙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왕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원히 완성하셨다. 이 세가지가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들어와서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실은 다른 것 필요 없다. 이것으로 끝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복음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약속이다. 이것이 마음에 늘 살아 있어야 한다. 늘 살아 있으면 24시이다. 한번씩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

을 정시기도라고 한다. 이것이 답이다.

1. 청중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사무엘상 15:2-3절에 써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대적한 것을 벌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땅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하였다.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라고 하였다. 남녀구분, 어린애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것이다. 우양, 낙타, 나귀,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15:8-9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대로 다 지키지를 않았다. 8절에 보면 아말렉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것들은 가지고 왔다. 그 대신 가치없고 그런것들은 다 죽였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한 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한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뭐냐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 사무엘의 대답이 22절이다. 하나님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다. 23절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였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악한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다. 이렇게 되니 사울이 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 그랬으니 용서하라고, 죄를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경배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 때에 26절에 사무엘이 대답을 하였다. 나는 왕과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다시 말했다. 아주 매정하게 잘라 버렸다. 그러나 사울은 사정이 급해졌다. 이것이 보통죄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 죽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갈려고 하는데 옷을 잡고 땀겨는데 옷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빌어도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정도로 해도 안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아말렉왕 아각을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33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각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찍어 찢겠다고 하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였다고 하였다. 찍어 찢겠다는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사무엘이 좀 심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냥 죽이면되지, 내 느낌으로는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찍어서 죽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지자가 부르다니까 아각은 살려줄줄 알고 웃으면서 왔다. 그런데 도끼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찍어서 죽였다고 써 있다.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써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죽을때까지 절대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이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무엘의 편이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상 끝장이 31장이다. 거기에 보면 사울왕이 죽는 장면이 나온다. 전쟁터에 가서 화살

을 맞았다. 상황이 죽게 되었다. 옆에 무기 가진 사람에게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하였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왕을 찌르겠는가?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거기 옆드려서 죽었다. 일면 남자답게 보인다. 그런데 그 날, 사울의 아들 3명 같이 죽었다. 우리는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무엘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 시대의 말씀에는 줄을 서야 한다. 성경에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려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으니 그 언약을 따라가야 한다. 적어도 이 시대의 말씀에는 줄을 서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에는 줄서야 한다. 그리고 위하여 렘넌트, 제자, 여기에는 줄 서야 한다. 적어도 이런 말씀은 버리지 말아야 하고 방해하는 자리에 서면 안된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2절에 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는 절먹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게 하셨다. 아주 전멸을 해서 씨를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짐승들도 다 죽여라, 좋은거 필요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정도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심각한 일이었다.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이 이야기이다. 출애굽기 17: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울왕을 통해서 이것을 하였다. 그리고 출애굽기 17:16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대적인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우리는 못 간다는 것이고, 가면 다 죽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분들은 당신의 백성들이다. 아말렉은 아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원수들이다. 자기 백성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다. 들어와서 언약되면 응답 받는다. 들어와서 언약 되면 인생 정복한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중대한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한 민족을 말살을 시키면서도 이 일을 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세계를 살리는 중대한 일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천지도 모르고 이것을 막으려고 나온 것이다. 이 가나안 가는 길이 오늘날 부활메시지 4개이다. 우리는 언약잡고 승리하고 증인되어야 한다.

2. 인본주의

사울은 사람 중심이었다. 말씀 중심이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면 또 다른 축복을 받고 평안히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세 아들이 그 날 같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사무엘상 15: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전쟁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본문 24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말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중했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30절에 보면 모든게 다 정리되었는데 사울이 자기 권위를 위해 한마디 더 보탤다. 내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릴 때 그 때 내 옆에 좀 있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 백성들이 사무엘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왕이 하나님 인정 받는다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차라리 옆에 옆드렸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는지 모른다. 아합은 굉장히 우상숭배 한 사람이었다. 엘리야 시대에 부인이 이세벨인데, 엘리야 죽이려던 사람이었다. 어느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를 아합에게 너가 어떻게 죽고 니 아내가 어떻게 죽을지 말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합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때부터 굶은 벼룩을 입고 행보도 천천히 했다고 하였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니가 아합왕이 내게 회개하는 것을 보냐고 하였다. 그래서 가서 말하라고 하였다. 니가 회개하니 니 대에는 저주를 안 내리고 니 아들대에 내리겠다고 하였다. 시대적인 우상숭배자였다.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왕자리 던지고 무릎꿇고 하나님 앞에 빌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안했다. 백성의 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면 죽는다. 인간 왕이나 정치인들은 백성의 여론을 두려워해야 한다. 자기 권력이 백성들에게 나왔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백성을 두려워하면 죽는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백성은 사역의 대상이다.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백성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는다. 물론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은 말이면 당연히 힘을 합하여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 끝까지 안 갔다. 중간에 가다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에 청중하는 것을 멈췄다. 안타까운 실수이다. 사실은 그 만큼 언약에 대한 확신이 모자랐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요구할 때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다. 틀렸다고 해야 했고 책망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렸어야 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죽여야 했다. 이것이 왕에게 주신 권세이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 지가 무릎을 꿇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힘은 말씀 지키는데서 나온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나는 어느쪽에 있는지 진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편에 다 있다. 얼마나 하나님 편인가 생각해보라.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사무엘은 아말렉왕을 찍어 쪼개서 죽였다. 사울은 아각을 데리고 왔다. 절먹는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하였다. 이 정도로 심각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다. 부활메시지 4개, 237, 치유, 서밋,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 대적하지 않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진짜 결심하고 정말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를 축복한다.